

비보이 문화학교 오픈 기념 파티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 주관... 누구나 참가·관람 가능
'3:3 올스타일 믹시드 배틀' 내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서 열려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하고,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이 주관하며, 전주시가 후원하는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 오픈 기념 파티 '2018 3:3 올스타일 믹시드 배틀'이 내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다.

'라스트포원'이 직접 기획한 이번 파티는 대화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오디션 방식으로 한명씩 차례대로 1분 이내의 댄스를 선보여 심사위원 5명의 예선 점수를 합산한 상위

24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예선에서 선발된 24명이 추첨을 통해 임의로 3명씩 팀을 구성하여 3대3 8강 토너먼트 배틀을 진행한다. 우승팀은 50만원의 상금, 준우승팀은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의 댄스 배틀대회 방식보다 신선하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여러 댄스 장르가 모인 대화방인 만큼 독특한 스타일의 춤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파티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및 참가 가능하며(참가비 무료) 예선은 오후 3시 본선대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한다.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는 비보이 전문가 양성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보이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주의 대표적인 청소년문화로 육성하고자 한다.

라스트포원의 조성국 단장은 "앞으로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가 전주의 스트릿댄서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라스트포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라스트포원

'이우환 위작설' 무마 시도 검찰수사관, 2심서 형 늘어

1심 징역 1년→2심 1년2개월 선고
업계 관계자 소환, 위작설 무마 종용
"자유 제한 가능 수사관 권리 남용"

화랑 측의 부탁을 받고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다"며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이 화백 작품을 유통하는 화랑 관계자들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미술업계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주사 직급 수사관으로 미술업계에 위조 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이 화백 위작설이 제기될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소속이었다.

1심은 "본인 직분을 잊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뉴스



민선7기 정읍시정 출범 축하

'새시대·새희망·새출발' 공연, 10일 정읍시예술회관서

민선 제7기 출범을 축하하고 시민 화합을 위한 정읍시립예술단 특별공연이 열린다.

오는 10일 저녁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펼쳐질 공연명은 '새시대, 새희망, 새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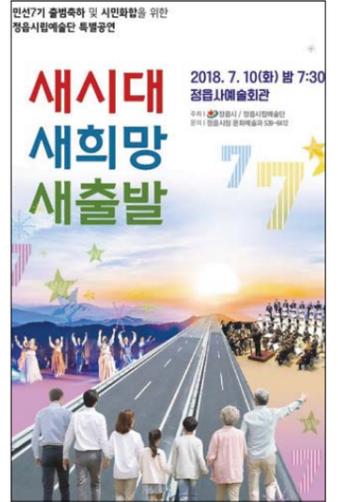
시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민선 제7기의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시립예술단(합창단, 농악단, 국악단)과 까메라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합창단은 특별초청자인 소프라노 고은영, 테너 조창배와 함께 까메라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에 맞추어 '희망의 나라로', '축배의 노래', '내장간의 합창'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또 농악단과 국악단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공연을 준비, 수준 높고 신명 넘치는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공연을 함께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민간의 눈과 귀로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단 한 분의 삶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시장이 되어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쓴 소리에도 귀를 열어 시민과 함께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름다운 뉴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티스트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 데이터저널리즘·데이터 아트 전문가들 대거 참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명준)은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콘텐츠 임팩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뉴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데이터 관련 전문가와 크리에이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총 40명을 모집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포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아트 등을 비롯해 새로운 포맷의 뉴스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디자이너 등 '문화기술전문가'와 ▲시각디자이너, 미디어아티스트, 웹툰·동화 작가,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뉴스·데이터·아트의 협업에 관심 있는 저널리스트, 그밖에 데이터를 다루면서 표현영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이다.

프로젝트로 결성된 각 팀에는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지원금과 서울 흥릉 소재 '콘텐츠인재캠퍼스'의 프로젝트 공간·협단체작시설 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제공된다.

총 10주간의 과정에 거쳐 진행되는 '아름다운 뉴스' 프로젝트에는 국내외 데이터저널리



스테파니 포사벡(Stefanie Posavec)

즘 및 데이터 아트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의 저자 스테파니 포사벡(Stefanie Posavec)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의 그래픽에디터 아돌포 아란즈(Adolfo Aranz) 등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돌포 아란즈의 경우 비주얼 저널리즘계의 폴리처상이라고 불리는 말로피에 어워드를 최다 수상한 바 있다.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